

土質및基礎技術士會의 過去를 回顧하면서



(주)평원엔지니어링 회장

이 재 현

기 역을 더듬어 보면 81년 6월 8일 경에, 지금은 지질 및 지반 기술사이지만 그 당시에는 응용지질 기술사라고 불리었는데, 그분들이 지질조사 품셈을 만들었고 우리도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박찬호, 심재구, 양현승, 이재현, 임규원, 임철웅, 조서일 등 당시 25인의 토질 및 기초 기술사중 업체에 종사하는 7명이 모여서 과학기술처 4호 품셈을 만들기로 하고, 대림산업 박찬호 이사실에서 에어컨을 켜놓고 회의를 하였던 생각이 납니다.

이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모여 단합을 하자고 한 것이 모태가 되어 정기적인 모임으로 토질 및 기초 기술사 모임인 「토기회」가 결성되었습니다. 이때 박찬호 이사가 작사작곡한 토기모임 주제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큰바위 깨트려 돌덩이, 돌덩이 깨트려 돌맹이, 돌맹이 깨트려 조약돌, 조약돌 깨트려 모래알,
라라라라라~~~”

이제 80회까지 토질 및 기초 기술사 850명이 자격을 취득하고 2003년 5월 6일 주재건 회장이 주관하여 (사)한국토질및기초기술사회가 태동되었고, 현재는 12대 류기정 회장이 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당시 여의도 먹자골목에 열빈이라는 유명한 중국음식점이 있었는데, 토기 회원이 오시면 이곳 “매실”로

안내하라고 하였더니 중국인 종업원들이 “토끼모임”에 오셨느냐고 해서 줄지에 토끼들이 되었습니다. 열빈에 이어 자매집에서도 자주 만났는데 심재구 사장 왈 “그 자매는 누가 채 갔을까?”라는 말도 했고, 박찬호 이사, 양현승 상무, 임철웅 이사가 2차로 가는 로즈라는 카테일바도 자주 갔었지요.

우리나라에는 세 종류의 토끼가 있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산악지대에서 댐이나 터널 공사를 위해 일하시던 지구물리 기술사들이 “산토끼”요, 두 번째로는 지하수 개발을 주로 하던 응용지질 기술사들이 “들토끼”라고 별칭으로 불렸지요. 세 번째로는 호박구덩이라는 지하터파기 토류구조물 설계를 하는 토질 및 기초 기술사는 “집토끼”라고 불리웠지요. 이걸 여담이지만 제가 회사를 창업하면서 토질 및 기초 기술사 3명이 토질 및 기초 1개 분야만으로 회사를 설립했더니 “저 회사가 잘 될까?”라고 우려의 눈초리로 바라보아 (주)평원엔지니어링 토끼는 “금토끼”로 불리기도 했지요.

그래도 이재현은 행복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열 몇 번째로 토끼가 된 덕분에 5계급 특진, 8배의 급여인상의 혜택을 받기도 했으니까요.

제가 권두언 원고 청탁을 받았을 때 제가 무엇을 써야 하는지 망설였습니다.

죽보라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그 가족의 선조들이 무슨 벼슬을 하셨고, 후학들에게 이를 주시시키고, 이런 식으로 너희들도 잘하라고 남긴 유작이고, ○○건설 50년사, 지반공학의 발자취 20년사 등도 따지고 보면 죽보와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토질 및 기초의 죽보를 살펴보십시오.

64년 기술사 제도가 도입되어 1회 임병조 명예교수님, 2회 변보엽 교수님, 6회 김춘호 본부장님, 진병익 회장님, 8회 김상규 대학원장님, 박병기 대학원장님, 송병무 박사님, 9회 양현승 회장님, 11회 조서일 상무님, 12회 김원태 고문님, 박찬호 회장님, 임규원 사장님, 13회 김주범 고문님, 14회 김영랑 처장님, 16회 강병희 대학원장님, 김종설 박사님, 엄채영 회장님, 이재현, 임철웅 사장님, 한상숙 총장님, 17회 최계식 원장님, 최정범 회장님, 18회 김인균 부회장님, 심재구 사장님, 이상오 부회장님, 이종규 교수님, 19회 김용하 부사장님, 김호일 부사장님, 이인형 처장님, 이진영 부사장님, 정형식 교수님이 등단하시었습니다.

그러면, 토질및기초회 회장을 기억해 봅시다.

1대 김주범 회장, 2대 박찬호 회장, 3대 양현승 회장, 4대 최계식 회장, 5대 이재현 회장, 6대 심재구 회장, 7대 최정범 회장, 8대 전준수 회장, 9대 심재구 회장, 10대 이석영 회장, 11대 주재건 회장, 12대 류기정 회장, 이렇게 연륜이 바뀌면서 오늘까지 이어왔네요.

다시, 토질 및 기초 기술사들의 서거에 관해 얘기하겠습니다.

- 변보엽 교수님은 산에서 야호를 외치시다 실족을 하시어 타계하시었고,
- 임철웅. 심재구. 이재현 3인이 공동 대작을 해야 주량을 맞출 수 있고, 병원에서 이 가려움증 하나 치료 못하는 사람이 의사냐고 하시며, 김주범 고문과 마지막 술을 드시고 입원하여 진병의 교수가 소천하신 것하며,
- 집사람에게서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지금 카투만두 상공에서 비행기가 폭발되었는데 그 명단에 조서일 상무(추후 전무로 추서됨)가 있는데 그 사람이 토질기술사 맞느냐는 전화를 받고 확인한 바, 사실이였으므로 밝혀졌으며 토기회 회장이라고 했더니 나는 정주영 회장과도 기술적인 입장에서는 조금도 양보안한다고 하시면서 굳이 네팔현장을 가다가 비산하신 일이며,
- 장세면 이라고 기억하는데 라오스에서 내일 귀국한다고 축하연을 벌였는데 그날 밤 촛불이 원인이 되어 화재가 나서 불귀의 길을 가신 분하며,
- 효자이신 환완균님은 부모님을 위해 서울 인근에 전원주택을 지어드리고, 장마철을 맞아 갔더니 또랑을 삼으로 만들고 있으셔서 “아버지 제가 할게요”하고 넘겨받아 작업을 하던 중 산사태가 일어나 운명하신 일이며,
- 새벽 4시까지 술을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이문수 교수가 결국 술과 함께 극락왕생하신 것하며,
- 애처가인 김용하님은 김포공항 쓰레기통 폭발사건으로 부인을 잃고 이것이 못내 서러워 3개월 뒤 부인을 따라간 사실하며,
- 중· 고· 대를 검정시험으로 들어가 기술사· 박사· 교수가 되신 도덕현 교수가 티프한 운전경력으로 비명횡사하신 일하며,
- 지병으로 타계하신 김춘호님이며... 그리고 또 있네요. 채흥대 회장님과 이상호 사장님도 별세하셨네요. 쓰자면 끝이 없겠지만 이렇게 토질 및 기초 기술사들이 가시는 것이 마음에 아픕니다. 이 글을 쓰면서 삼가 고인들에게 머리숙여 안식을 빕니다.

- 400여명의 우대기술단 직원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던 양현승 회장이 회사의 부도로 자전거로 한강 산책로를 오르락 내리락하는 처지가 된 것도 마음이 아픕니다.

즐거운 이야기를 해볼까요?

임병조 교수님 아들 임성철, 김주범 고문 아들 김재수가, 김춘호 본부장 아들 김희철이 부자(父子) 토질 및 기초 기술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 이민호가 토질 및 기초 기술사가 된다면 4대 부자 기술자가 탄생하겠네요. 바램을 가져 봅니다.

특히나 58세에 토질 및 기초 기술사가 되신 오치상 회장님이 화제에 오르기도 했고, 74세인 연세에도 불구하고 현직에 근무하시는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런점은 후학들에게 귀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성수대교, 박달2교, 대구지하철, 행주대교, 삼풍백화점 등 문제의 현장 조사 및 원인분석, 대책공법 연구 등에 참여했지만 그래도 자부심을 갖습니다. 5대 회장 시절 모이면 식사도 하고 술도 먹는데 조금만 달래도 너도 나도 정감 있게 가득 한잔씩 따라 주는 바람에 토기회가 모이는 날은 50여명에게 한잔씩만 받아도 그 이튿날은 만신창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술, 담배 이야기도 미담중의 미담이지만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기술사는 자기개발, 자기발전, 자기정진 등 노력을 해야지 기술사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힘주는 세대는 지났습니다. 경력관리도 잘해야 되고, 자기 전공에는 자신을 가지는 실력을 보유해야 됩니다. 기술사 자격이 있다는 자부심 또는 자긍심 이거 버리십시오. 그래서 진정한 토질 및 기술사회 회원이 되시고 그러므로 영원한 토질 및 기초인이 되십시오. 파이팅!

끝으로, (사)한국토질및기술사회가 영원히 발전하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고, 상호협력하여 상부상조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발전이요, (사)한국토질및기초기술사회의 영광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勤能補拙(부지런한 사람은 부족함을 능히 보충할 수 있다)이라는 고사를 상기하십시오.